

북스

Books

시스템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

'1Q84' 1·2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상상의 시대' '해변의 카페카' 등의 소설로 전세계 독자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무라카미 하루키(60)가 5년 만에 신작 '1Q84'를 들고 돌아왔다. 일본에서 다시 '하루키 붐'을 일으키고 한국에 상륙했다.

새 장편소설 '1Q84'에는 '하루카적인'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있다. 현실과 환상의 교차, 곳곳에 스며있는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감, 도회적인 감각과 모던한 문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인가'를 묻게 하는 철학적 탐색, 인간의 영혼을 작위하는 사교집단의 광기, 추리소설을 연상시키는 긴박한 범죄 묘사까지...



소년은 애뜻한 사랑 이야기다. 소설의 무대는 1984년의 일본 도쿄. 주인공은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고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스물아홉살의 두 남녀다.

남자 주인공 덴고는 일주일에 사흘은 입시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장편소설을 쓰는 소설가 지망생. 연인인 열 살 연상의 유부녀와 일주일에 한 번씩 밀회하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랠다.

여자 주인공 아오마메의 공식적 직업은 고급 스포츠 클럽의 마사지 트레이너. 매력적인 외모와 달리 여성을 학대하는 남자들을 '아이스팩'이라는 특수침으로 '조용히 다른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청부 살인업자다. 그녀는 클럽에서 중년 남성과 원나잇 스타일을 즐기는 것으로 살인 후의 긴장을 푼다.

시기별로 각각 24개 장으로 나누어진 소설은 장조와 단조가 반복되는 수학적 아름다움을 갖춘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형식을 차용, 두 남녀의 이야기가 교차하며 전개된다.

작가는 이 작품을 쓰면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구성을 염두에 두었다. 12음계를 균등하게 사용한 48곡을 1권과 2권에 절반씩 배치한 곡처럼,

이 소설도 1권 24장과 2권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글을 쓰며 늘 음악을 염두해두는 하루키는 이번 신작에서도 아나체코의 '신포니아타',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등 다양한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했다.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남녀가 운명적인 해후를 향해 달려가는 소설적인 긴장감도 일품이다.

유년시절 부모와의 불화를 겪었다는 공통점 외에도 두 사람을 엮어주는 문학적 장치가 하루키 소설의 시대배경인 1960~70년대 일본의 학생운동 '전공부'와 맞닿아 있는 점도 흥미롭다.

덴고는 출판사로부터 여신도들에게 성폭행을 일삼는 지도자들이 지배하는 '선구'라는 신흥종교집단의 내부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리라이팅하라는 미션을 받는다.

아오마메 역시 우연한 기회에 '선구'에서 탈출한 소녀를 돕게 된다. 소설에서 '선구'의 모태가 되는 집단은 전공부 투쟁에서 살아남은 일본의 좌파 지식인들이 조직한 코뮌이다.

작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음 진리교의 지하 철 독자들 살포 사건, 한신 대지진 등을 잇따라 겪은 일본인들이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라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경험했으며 이번 소설은 그런 질문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1Q84'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따왔다.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시스템에 억압당하는 인간'을 그렸다는 점에서 두 소설은 통하는 점이 있다.

1, 2권 모두 600여 쪽에 달하는 만만치 않은 분량이다. 양도 양이러니와 두 남녀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진행되는 구조라 하루키 특유의 감성을 이해하려면 '음악처럼 느껴, 주의를 서늘하게' 필요하다.

(문학동네·각권 1만4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지 퇴계에게서 배우다



선인들의 삶과 사상을 소설형식으로 써 온 작가 설흔씨가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의 공부 비법을 담은 인문실용소설 '퇴계에게 공부법을 배우다'를 펴냈다.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알리며 문공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연암에게 글쓰기를 배운다'를 잇는 책.

퇴계가 청량산 오가산담에서 머물며 배움에 목말라하는 이들을 만나 하루하루 그들에게 맞는 공부법을 일러주는 이야기를 통해 공부의 큰 밑그림을 제시해준다.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등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담·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비틀즈

마크 루이스 지음



2009년 9월 9일 9시 9분 9초. 비틀즈가 돌아왔다. 이날을 기해 전세계에 동시 발매된 리마스터 버전 앨범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음반 판매의 열풍과 함께 비틀즈에 열광하는 팬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더 있다. 앨범 발매와 때를 맞춰 마크 루이스의 저작 '비틀즈(The Complete Beatles Chronicle)'가 안역돼 나왔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틀즈에 관한 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전설적인 마니아북'으로 마니아 사이에서 '바이블'로 불리는 절대서이다.

그의 전작 'The Beatles Live!'와 'The Beatles Recording Sessions'의 정수만 다시 모아 엮은 책은 비틀즈의 모든 무대공연과 라디오·TV 방송, 음반 녹음작업은 물론이고 그들이 무명시절부터 전성기까지 공연이나 음반취입 등과 관련해 작성했던 계약서와 관련 기사들, 출연을 알리는 포스터와 선전물까지 비틀즈 활동 전부를 낱자순으로 낱낱이 기록했다.

비틀즈 전문가인 저자는 음반사 EMI의 정식 요청에 따라 EMI가 소장한 비틀즈의 모든 자료를 장장 7년에 걸쳐 분석해 완성했다.

책은 출간 당시 "비틀즈에 관해 이보다 더 자세하고 종합적인 책은 없다"(더 타임스)는 극찬을 받았으며 비틀즈의 생존 멤버 중 한명인 폴 매카트니와 프로듀서 조지 마틴은 책을 접하고 "그는 비틀즈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경탄하기도 했다.

이런 출간만 한국에는 원작에도 없는 고급 컬러 화보들도 다수 수록했다.

"비틀즈에 의해 내 청춘은 트로트와 군가의 정서로부터 진화할 수 있었다."(소설가 김훈) "나중에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이 나왔을 때 비틀즈 마니아를 자부했던 내가 그 곡을 못 들어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견디기 어려웠다. 어렵사리 그 곡을 구해 들었던 순간의 설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국회의원 강용석)

사진자료 500여 장과 한국 명사들의 '내 인생의 비틀즈' 등 편집진이 마련한 보너스도 돋보인다.

(소설가김훈·6만9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만화 김대중 1, 2=서울신문에 시사만평을 연재하고 있는 백무현 화백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만화로 엮었다. 전 5권 중 1, 2권이 먼저 나왔다. 1권 '하의도에 핀 인동초'는 김 전 대통령이 태어나서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을 그렸고, 2권 '행동하는 양심'에는 이회호 여사를 만나 결혼하고 박정희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모습,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경쟁, 일본 납치사건, 유신 반대운동 등을 담았다.

(시대의창·각권 1만1천800원)

▲웃으면서 이기는 바보의 비밀=미국의 불교지도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웨스 니스커가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활용할 줄 몰랐던 '위트'라는 지혜를 추적하며 인간의 본성, 여러 현상들의 근본 원리에 다가가고 있다.

(이레·1만2천원)

▲물의 미래-인류 문명과 역사를 뒤바꿀 최후의 자원=프랑스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 중인 에릭 오르세나이가 2년간 물을 따라 세계를 돌며 보고들은 바를 적은 탐사보고서이자 물의 현재와 미래를 탐구한 교양사다. 전작 '코트 로드'에 이어 사상 초유의 권력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원천으로 급부상한 물의 진정한 속성을 면밀하게 파헤친 날카로운 통찰력과 여유있는 글솜씨가 돋보인다.

(김영사·1만6천500원)

▲파리를 생각한다-도시 걷기의 인문학=알파람,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을 시도하는 사회학자 정수복씨가 파리에 체류하며 쓴 사회학자의 인문학적 파리 산책기이다. 파리 체류 14년 동안 파리 곳곳을 산책한 사색 체험과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독자와 연구, 성찰과 사색의 순간들과 함께 아우르며 '풀어 있는 삶을 위한 도시'의 조건을 탐색했다.

(문학과지성사·1만3천원)

▲이 세상의 모든 시인과 화가=시인이자 소설가인 김경환씨가 이리저런 지면을 통해 발표한 시인과 소설가 화가 등에 대한 글을 모았다. 김경환 예술 산문집이라는 부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윤수·신경림·채광석·이문구·임옥삼 등 그가 만난 문인들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최근까지 '어느날의 꿈' 해설, 임옥삼 미술전 '절기시대 이후를 생각한다'에 부처 등 화가에 대한 예술론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뤘다.

(삼인·1만3천원)

▲커피잔을 들고 재채기=10인의 짧은 환상문학 작가들의 작품집. '드래곤 라자'로 한국 판타지 문학의 새 역사를 쓴 이영도와 장편소설 '절망의 구'의 김이환, 김보영 등의 신작이 실렸다. 기발한 착상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단편을 만날 수 있다.

(황금가지·1만2천원)

▲괴짜가 사랑한 통계학=페르미 추정(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엔코 페르미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시험하던 문제유형에서 유래한 사고의 방식)을 응용해 통계로 도출해내는 '괴짜 통계학' 이야기다. 저자 테터셀 박사는 기본적인 수학과 통계와 간단한 암산만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방대한 통계를 도출하는 과정을 폭소 보여준다.

(한겨레출판·1만2천원)

무대공연·TV 방송 등 비틀즈 모든 것 담아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갈치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할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세/월별	대표이사 010-7570-7525	속삭시세/상가	대표이사 010-7578-7525	공장/토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263,23838 6344천 30억	예시장	소재지 대124,2155 1999천 2억	비고	소재지 대144,2138 794천 2억	비고

아파트/빌라	박영수빌딩 010-4640-2142	주목/재개발	경이사 010-5879-0005	근린주목	손혜연이사 010-9611-2817
소재지 대263,23838 6344천 30억	예시장	소재지 대124,2155 1999천 2억	비고	소재지 대144,2138 794천 2억	비고

광주 전지역 빌딩 전문

빌딩(대형)임대 및 매매
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수완지구 전지역
수익성 빌딩 및 사옥 중개

매수 및 매도
전화상담 환영

(유)코리아랜드
☎ 959-1033, 010-7723-1033

대인동상일부동산
☎ (02)223-1140, 5210 011-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실분과 염오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